

[해외축구] “英축구 쉽지 않아” 퍼거슨 전 맨유감독, 과르디올라에 충고

등록 2016.04.01 11:20:40 | 수정 2016.12.28 16:50:57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오는 7월 맨체스터 시티 지휘봉을 잡는 펄 과르디올라 바이에른 뮌헨 감독에게 “영국 축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훈수를 뒀다.

미국의 스포츠 채널인 ESPN은 3월31일(현지시간) 퍼거슨 전 감독이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과르디올라는 감독으로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퍼거슨 전 감독은 “영국에 온 외국인 감독들은 그 사실을 말해준다”며 “아르센 웅거 감독도 영국에 온지 수개월만에 그 점을 얘기했고, 무리뉴 전 감독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승 다툼이 치열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빅 클럽들이 과르디올라의 독주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퍼거슨 전 감독은 “그것이 우리 리그의 아름다움”이라며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은 그들의 야망을 지니고 있고, 다음 시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레스터 시티도 이러한 우승경쟁에 가세했다”며 “그들(빅클럽)이 다음시즌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고 말했다.

퍼거슨 전 감독은 "과르디올라는 영국에서 성공하겠지만, 바르셀로나에서의 성공을 복제하기는 힘들다. 그들(바르셀로나)은 최고이기 때문"이라며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력 차이도 지적했다.

yunghp@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